

# 광주시, CES 첫 참가...“첨단 가전기술 뽐낸다”

### 광주권 공동브랜드 홍보관 운영...지역기업 8개사 14개 제품 전시

광주시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 지역 기업 8개사를 이끌고 첫 출전한다.

CES는 미국 소비자전자제품 전시회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스마트가전, 5G, AI, IoT, 헬스케어, 자동차 기술 등 미래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전시회다.

광주시는 CES 2023이 열리는 내년 1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광주권 공동브랜드 홍보관'을 운영, 인공지능(AI)과 지능형 스마트홈 기술이 구현된 가전·IT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등 감염병과 황사·미세먼지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공기질 개선 욕구에 맞춘 공기청정기 제품이 다수 출품돼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이번 CES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디케이의 벽걸이 공기청정기, ㈜벤텍프론티어의 공기청정기, ㈜쓰리에

이치굿스의 원격외선 히터 무풍난풍기, ㈜아이디어스의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시스템, ㈜아이콘의 살균건조기, 티아이피인내셔널의 차량용 공기정화기, ㈜현성오텍의 인공지능 조리기 등 총 8개 기업 14개 제품이다.

특히 ㈜벤텍프론티어는 바이러스에 특화된 항균·항바이러스 공조필터 기술을 활용한 '공기청정기 KOKOS'를 선보이고, ㈜디케이의 공기청정·살균 기능이 결합된 광촉

매 살균기술이 적용된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전시,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는 가전제품으로 주목된다.

㈜아이디어스의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IoT 기술을 활용해 가정에서 비접촉 출입 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시스템 제품으로 노약자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기술제품이다.

CES 2023에 참가하는 공동브랜드는 광주시가 개발한 '지엘(GIEL)'이다. 지엘은 2018년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조일상 기자

# '폭설·한파'로 조류독감 확산 우려

### 전남 특별방역...폭설·한파 이어지면서 소득 여건 열악

전남도는 최근 폭설과 한파로 소득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군에서는 31일까지 살수차,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득자원 268대를 총동원해 발생 농장과 주요 철새 서식지, 가끔 밀집지역, 도축장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또 가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축산차량 운전자 등은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

장시설·차량, 사육도구 등을 매일 소독해야 한다.

가금농장은 축사를 진입할 때 방역실에서 소독, 전실에서 손소독 및 전용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전남도는 통제조소 근무자, 전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이번 특별소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계열사와 생산자단체에서도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해 매일 소독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 광주시 산하 50개 공공기관 가뭄 극복 앞장 '물 절약'

광주시 산하 50개 공공기관들이 최악의 가뭄으로 30년 만의 제한급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물 절약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50곳이 물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수입저감 조치는 물론 절수기 설치, 변기 내 벽돌·페트병 투입, 상수대신 지하수 사용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세면대 수전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북구청은 청사 내 모든 양변기에 벽돌을 투입하고 세면대에는 모두 수전절수기를 설치했다. 서구청은 청사 세면대 전채를 자동센서 수전으로 교체했다.

변기 내 벽돌·페트병을 투입하면 1회당 물 1~1.5ℓ를 절약하고 세면대 수전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물 70%를 아낄 수 있다.

각 기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11월 수도 사용량 기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7에서 1400t으로, 북구청은 720t에서 504t으로, 12월에는 각각 30%를 절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광주시의 이례적인 가뭄 상황에 유동 인구가 많은 기관부터 발벗고 나섰다"면서 "내년에도 절수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물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 시 수집개선과장은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물을 절약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가정 내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협약 김영록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박완수 경남지사(왼쪽)가 28일 오전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협약식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이젠 해양관광 시대' 전남·경남·부산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3개 시·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조성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천혜의 섬·갯벌·해안 등 세계적 해양관광 자원의 보고인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28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남해안을 지중해와 멕시코 간만에 버금가는 세계적 해양 관광지 만들기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뛰어난 역사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글로벌 신해양관광·휴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케이(K)-관광을 견인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식은 김영록 지사, 박완수 지사, 박형준 시장과 오동호 국립섬진흥원장, 전남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 출연기관장, 3개 시·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시·도지사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아름다운 섬, 갯벌 등 천혜의 자연유산, 독특한 관

광자원을 바탕으로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과 연계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연계·협력사업 공동 추진, K-관광 세계화 선도를 위한 관광브랜드 및 관광상품 공동 개발, 세계인이 찾는 휴양벨트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이다.

또 국가 주도의 광역관광권 개발을 위한 가장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 공동 노력,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민·관 전문가 추진협의체 구성 등이다.

# 광주시 내년 문화체육 분야 국비 역대 최대 93건 1729억, 전년 대비 5.2% 증가...아특회계 최초 500억대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해 민선 8기 주력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544억원보다 185억원 증액된 1729억원(93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444억원보다 70억원이 늘어난 51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초 500억원을 돌파했다. 광주 EBS 아시아캐릭터랜드 구축과 디지털아트 컬처랩 운영, 아시아문화기술실증센터 운영 등 7건의 신규 사업과 30건의 계속사업비가 포함됐다.

정치권과의 공조와 시기별·단계별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

이다.

1995년 출범 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도약한 광주비엔날레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라키비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5억원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또 광주 EBS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비 58억원도 확보했다. 인지도가 높은 EBS 캐릭터들과 5G 실감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을 결합해 최첨단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육을 접목한 가족형 문화체험공간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풀뿌리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의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운영비 30억원이 반영됐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